

구술을 통한 무슬림 전도와 제자 훈련 : 키르기스스탄 “복의 근원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김성운*

I. 들어가는 글

II. 구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

III. 이슬람과 구술

IV. 마나스 서사시의 특징과 키르기스 이슬람

V. 복의 근원교회 사례와 성경 낭송에 대한 평가와 제안

VI. 나가는 글

* 고려신학대학원 선교학 교수

■ 한글초록

본 논문은 키르기스 문화에 적합한 구술 방법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무슬림들은 능숙한 구술 학습자이자 구술 전달자이다. 무슬림들이 현대에도 꾸란과 하디스를 구술로 가르치는 것은, 구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키르기스 무슬림들에게 구술의 의미와 중요성은 더욱 특별하다. 키르기스인의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이 독특한 창법으로 낭송되는 마나스(Manas) 서사시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키르기스스탄에는 마나스 낭송법으로 전도와 제자 양육을 하는 교회가 있다. 이 교회의 사례는 키르기스에 적합한 구술 방법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교회는 키르기스에 상황화 된 이 좋은 방법으로 성경을 그대로 낭송하기 때문에 구술적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삼위 하나님의 창조-타락-구속의 거대한 이야기인 성경을 이야기로 구성하여 낭송한다면 키르기스인들의 내면에 있는 이슬람의 이야기를 바로잡아 예수를 따르도록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주제어: 구술, 상황화, 무슬림 선교, 이슬람, 키르기스 민속 이슬람

I. 들어가는 글

구술(oral transmission)¹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문자가 개발되어 구술의 내용이 기록된 형태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것이 구술의 자리를 대신하지는 못하였다.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 수많은 문서와 책이 출판되었고 최근에는 전자매체 사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구술은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 데이비드 클레이돈(Daivid Claydon)은 세계 인구의 2/3가 문자를 해독할 수 있고 기록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술적 의사소통이나 학습을 선호한다고 말하며,² 미국 신학생 281명을 대상으로 9년 동안 연구한 결과는 이 기간 사이에 신학생들의 구술적 학습 선호도가 42%에서 62%로 높아졌음을 보여준다.³

문자 문화권인 서구에서 구술적 방법에 대한 선호도가 이렇게 높다면 구술 문화권의 상황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최근 통계자료들에 의하면, 세계 인구 가운데 40억이 구술적 방법으로 배우고 있으며⁴ 세계 미전도 종족의 75%가 구술 문화권에 살고 있다.⁵ 이들은 대부분 무슬림이다. 구술 문화권 사람들은 말하고 듣는 방

1 영어 'oral'이라는 단어는 '구술', '구어', '구전'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구술'로 사용했다.

2 Daivid Claydon, *Making Disciples of Oral Learners*, 채천석 역, 『구술 문화권 사람들 제자화 하기』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2007), 15.

3 Jay Moon, "I Love to Learn but I Don't Like to Read: The Rise of Secondary Oral Learning," *Orality Journal*, vol 2, no. 2 (2013), 55-65.

4 Alex G. Smith "Communication and Continuity Through Oral Transmission," Paul H. De Neui ed, *Communicating Christ Through Story and Song* (SEANET 5)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2018), 2.

5 김연수, "전방개척선교를 위한 구술 문화권 이해와 사역," KWMA 2018 세계선교대회 & 7차 세계선교전략회의 자료집 (2018), 100.

법을 통해 가장 잘 배우고 가르치는 구술 학습자이자 구술 전달자이다.⁶ 그런데 무슬림 사회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대부분은 구술이 아니라 문자로 기록된 자료들을 사용하고 있다. 선교사들이 기록된 자료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것은, 이 방법이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술문화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구술 방법과 형식들을 무시하고 문자로 기록된 자료들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 더구나 이러한 방법은 현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서구적 방법이 기독교적인 방법이라는 그릇된 인상을 심어 주어 그들도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선교사들의 방법을 답습하게 만든다.⁷ 무슬림 선교가 노력에 비해 만족할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구술적 방식을 존중하고 사용하지 않는 데 있을 것이다.⁸

구술 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하여 복음을 전하려면 메시지와 함께 전도와 제자 훈련의 형식과 방법도 수신자 중심으로 상황화 되어야 한다.⁹ 이러한 관점에서 로잔 운동 케이프타운 서약(The Cape Town Commitment)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기” 2항에서 구술 문화권에 있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

6 Daivid Claydon, 『구술 문화권 사람들 제자화하기』, 17.

7 Charles H. Kraft, “상황화와 시간: 세대적인 타당성,” Charles H. Kraft, *Appropriate Christianity*, 김요한 · 백신중 · Peter Kang · Christina Kang 공역, 『말씀과 문화에 적합한 기독교』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427.

8 일생을 바쳐 한 부족을 위해 성경을 번역했지만, 부족민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을 보고 큰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다가, 그 부족은 글이 아니라 구술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을 이야기(storytelling)로 만들어 전해주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한 WBT 선교사의 사례가 이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Yoon-Soo Kim, “Mission for People in Oral Culture,” 『한국선교 KMQ』 English Edition (2016), 79.

9 Charles H. Kraft, *Communication Theory for Christian Witness*, 박영호 역, 『기독교 커뮤니케이션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129~150. Darrel L. Whiteman, “선교에 있어서 적합한 상황화의 기능,” Charles H. Kraft ed. 『말씀과 문화에 적합한 기독교』, 101.

기 위해서 구술적 방법을 사용하고, 구술 성경 이야기를 만들어 내고, 구술적 방법으로 전도하고 훈련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선언한다.¹⁰ 사도 바울처럼, 구술 문화권 사람들을 얻고자 한다면 구술 문화권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전 9:19~22).

본 논문은 강한 구술문화를 가지고 있는 키르기스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구술적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키르기스 문화에 적합한 구술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먼저 문자가 발달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구술 사용을 고수하는 이유와 이슬람에서 구술의 위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어서 키르기스 민족의 정체성의 원류이자 키르기스 구술 문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마나스 서사시의 성격과 특징을 살펴본 후 마나스 낭송 방법을 전도와 제자 양육에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복의 근원교회 사례 연구를 통해 키르기스 무슬림들에게 적합한 구술적 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II. 구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

월터 옹(Walter Ong)의 연구는 구술 문화권 사람들과 문자 문화권 사람들 사이에는 사고방식과 정신구조(mentality)에 상당한

10 Lausanne Movement, *The Cape Town Commitment: Study Edition*, 최형근 역, 『케이프타운 서약』 (서울: IVP, 2014), 104-105. 케이프타운 서약서 2부 D, 2 “구술문화”에서 제안한 요청에 따라 10개국 29명의 학자가 참여하여 만든 보고서는 구술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와 전략과 방법을 11개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Grant Lovejoy ed, *Making Disciples of Oral Learners*, Lausanne Occasion Paper, No. 54 (Pattaya, Thailand: Lausanne Committee for World Evangelization, 2005).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¹ 그러므로 구술 문화권 사람들에게 구술적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구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것이 삶과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 말에는 힘이 깃들여 있다.

구술 문화권 사람들이 구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말에는 위대한 힘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¹² 음성은 유기체 내부에서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가 가지지 못한 역동적 힘이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들음은 본질적 존재 양식이기도 하다. 모든 인간은 언어적인 능력을 몸에 지니고 태어난다. 읽기와 쓰기는 태어난 이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 인간들에게 자신이 존재와 성품 그리고 뜻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인간은 말씀을 매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게 된다.¹³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롬 10:17)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말에는 이런 신적인 특성과 힘이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경전이 있음에도 말을 하고 듣는 설교가 예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말이 힘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시각은 분리하고 청각은 합체시키기 때문이다. 보는 행위에서 대상은 보는 사람에게서

11 Walter J. Ong,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이기우·임명진 공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2009.

12 Walter J. Ong, 앞의 책, 55.

13 김규보, “시물라르크 세대와 “들음” 회복으로서의 종교개혁: 기독교 교육과 상담의 통합접근,” 『성경과 신학』 85 (2018), 101-134.

떨어져 있지만, 듣는 행위에서 소리는 듣는 사람의 내부로 쏠려 들어간다. 문서 학습자는 이야기 밖에 서서 그것을 평가하지만, 구술 학습자는 이야기 안으로 들어간다.¹⁴ 문서를 읽는 사람은 문서 밖에 있지만, 말을 듣는 사람은 청각 세계의 중심에 있으므로 들은 것을 통합해서 자신 속에 합치시켜 내면화시킨다.¹⁵ 음성은 정서적인 특성을 전달하는 데 인쇄물보다 효과적이다.¹⁶ 이처럼 말은 화자와 청중 사이에 일체감을 형성하고 화자와 청중, 청중과 청중을 하나로 결속시킨다.¹⁷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은(롬 10:17) 말에는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2. 이야기는 들은 것을 마음에 새겼다가 생각해낼 수 있게 한다.

근대 이후 구술 문화권 사람들도 문자를 통해 지식을 전수하고 배우지만 원래 구술 사회에서는 텍스트가 없었다. 구술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듣고, 들은 것을 반복함으로써 배우는 능력을 발전시켰다. 이들에게 ‘읽’이란 들은 것을 마음에 새겼다가 필요할 때 종합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술 문화권 사람들은 성경이나 책으로 읽은 내용을 생각해내어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한다. 책에서 읽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읽’이라고 할 수 없다. 이들은 설교나 대화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대부분 생각해낸다. 구술 문화권인 터키인들은 이것을 ‘귀 지능’(Kulak zekasi)이라고 부른다. 읽

14 Avery T. Willis Jr and Mark Snowden, *Truth and Sticks*, 김연수·김택주 공역, 『성경 스토리 텔링』 (서울: 아가페북스, 2015), 73.

15 Walter J. Ong,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119-121.

16 Charles H. Kraft, 『기독교 커뮤니케이션론』, 214.

17 Walter J. Ong,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122-124.

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알고 이렇게 습득한 지식이라야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아무리 뛰어난 ‘귀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도 들은 것을 다 기억하여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자문화에서는 지식을 얻어 사용하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록으로 남기면 되지만, 구술문화에서는 그것을 반복해서 말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보를 쉽게 기억하고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전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고안된 장치가 이야기, 시, 잠언이다. 구술문화에서 경험이나 정보나 지식을 이야기로 만들어 전달하는 것은, 이야기(story)가 인간의 행동에 대한 많은 것을 견고하게 보관하고 조직하여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¹⁸ 우리가 경험하듯이 권선징악이나 영웅들의 활약을 담은 이야기들은 우리의 정서와 심리를 자극하여 그 내용을 기억하고 다시 환기해 내도록 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 볼 때, 성경의 75%가 이야기인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통해 자기의 뜻을 계시해 주신 것은 인간이 실재를 이해하고 기억하고 전달하는 데 이야기보다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예화나 비유 같은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셨다. 하나님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 구술 문화권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적절하고 좋은 방법은 없다.¹⁹ 그래서 폴

18 Walter J. Ong, 앞의 책, 220-221.

19 브루스 칼튼(Bruce Carlton)은 이야기를 통한 제자 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150개의 성경 이야기 목록과 그 이야기를 사용할 때 적용해야 할 7가지 중요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R Bruce Carlton, *Acts 29: Practical Training in Facilitating Church-Planting Movements Among the Neglected Harvest Fields*, 채천석 역, 『Acts 29』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2007), 204-222. 에어버리 윌리스는 스토리텔링이 구술 문화권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히버트(Paul G. Hiebert)는 구술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야기, 음악과 같은 구술적 방법을 사용하라고 권고한다.²⁰

구술문화에서 이야기는 종종 운율이나 곡조와 함께 전달되는데,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가 운율이나 곡조를 가지면 기억과 전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찰스 크래프트(Charles H. Kraft)는 운율이나 쉬운 곡조로 표현된 메시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머무르며, 그것이 반복하여 회자 될 때 그 영향력은 아무리 크게 평가해도 과하지 않다고 말한다.²¹ 유대인들이 구약을 암송할 수 있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이 운율을 가진 운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고대 그리스인들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암송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서사시가 엄격한 운율과 정형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꾸란 역시 운문으로 되어 있어서 아랍어를 모르는 사람이나 어린이들도 꾸란 전체를 암송할 수 있다. 키르기스 마나스 낭송자들이 50만 행이나 되는 서사시를 암송할 수 있는 것은, 마나스 낭송자들이 수 세기에 걸쳐 이 신화를 암기하기 쉽도록 운율과 정형구를 가진 레치타티보(recitativo)²² 창법으로 다듬었기 때문이다.

Avery T. Willis Jr and Mark Snowden, *Truth and Sticks*, 김연수 · 김택주 공역, 『성경 스토리텔링』 (서울: 아가페북스, 2015).

20 Paul G. Hiebert & Eloise Hibert Meneses, *Incarnational Ministry: Planting Churches in Band, Tribal, Peasant, and Urban Societies*, 안영권 · 이대현 공역, 『성육신적 선교 사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172.

21 Charles H. Kraft, 『기독교 커뮤니케이션론』, 203.

22 레치타티보는 오페라에서처럼, 선율보다 대사 내용에 중점을 두고 말하듯이 노래하는 창법이다.

3. 이야기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로 묶는다.

구술 문화권 사람들에게 배우거나 안다는 것은, 대상을 인식하여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지는 대상에게 감정을 이입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구술 문화권에서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쉽게 등장인물과 하나가 된다. 이들은 이야기를 듣고 전하여 소유함으로써 동일한 가치, 감정, 기억을 소유한 공동체가 된다. 월터 옹은 이것을 “집단적 회상에 참여함으로써 해서 배운다”라고 표현하며,²³ 조지 스트룹(George W. Stroup)은 이러한 공동체를 공통의 이야기로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말한다.²⁴

그리스 신화나 마나스 서사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는 수평적으로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수직적으로 세대 사이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한다. 마나스 서사시는 여러 부족으로 구성된 키르기스인들이 집단적 회상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가치관과 정체성 그리고 세계관을 가진 하나의 국가 공동체가 되도록 묶는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경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소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루는 삼위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속, 회복과 완성이라는 장엄한 이야기는 서로 다른 민족과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든다.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힘과 중요성

23 Walter J. Ong,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19.

24 George W. Stroup, *The Promise of Narrative Theology* (Atlanta: Jhon Knox, 1981), 132-133.

을 간파한 일련의 신학자들은 신앙을 개인의 이야기와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상 가운데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의 결합이라고 전제하고 ‘이야기 신학’(narrative theology)을 전개한다.²⁵

구술은 목소리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식의 전달도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존한다. 스승은 자신이 전하는 지식을 기억했다가 그것을 전달할 제자를 도제로 양성한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도제 방식으로 가르치고 훈련하셨다. 예수님은 선택하신 열두 명의 제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말과 행동, 질문과 대답, 확인을 통해 제자들이 전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 구술과 도제를 통한 가르침과 배움은 서구식 신학 교육기관을 세울 수 없는 이슬람 사회에서 성도를 훈련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최적의 방식이다.

4. 이야기는 논쟁과 충돌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세계관을 바꾼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야기는 한 사람의 세계관과 정체성을 형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게 함으로써 개인에게 정체성과 세계관에 의문을 던지고 혼란을 일으킨다. 톰 라이트(Tom Wright)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와 세계관을 수정하거나 바꾸는데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²⁶ 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형성한 세계관을 바꿀 때 일어나는 현상을 조지 스트룹(George W. Stroup)은 “이야기들의 충돌”이

25 Narrative Theology에 관해서는 Stanley J. Grenz and Roger E. Olson, *20th-Century Theology*, 신재구 역, 『20세기 신학』 (서울: IVP, 1997), 439-460을 보라.

26 N. Tom Wright, *The New Testament and the People of Go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40.

라고 정의한다.²⁷

성경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내면에서 신앙이 시작되도록 하고 회심에 이르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야기 자체에도 힘이 있지만, 성령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기 때문이다(요 15:26~27; 16:8~11). 그런데 이야기는 논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는 청자들이 메시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해석하여 의미를 찾아가도록 하기 때문이다.²⁸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제시하거나 변증하면 대개 논쟁이 발생하지만, 성경 이야기를 하면 논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무슬림들이 민감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한 내용이지만, 이야기는 그들의 신앙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지 않고 무슬림들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²⁹

Ⅲ. 이슬람과 구술

무슬림의 대다수는 구술 문화권에 살고 있다. 자신의 글과 언어로 기록된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차적 구술 문화권”에 속한 무슬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차적 구술 문화권”에 속해있

27 George W. Stroup, *The Promise of Narrative Theology*, 186.

28 Shawn B. Redford, “적합한 해석학,” Charles H. Kraft ed. 『말씀과 문화에 적합한 기독교』, 376.

29 Avery T. Willis Jr and Mark Snowden, 『성경 스토리텔링』, 150-152.

다.³⁰ 이들은 문자를 읽고 쓸 수 있지만 글보다는 구술로 배워 그것을 암송하거나 종합하여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을 선호한다. 무슬림들은 구술을 통해 “집단적 회상”에 참여함으로써 세계관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음 세대로 전달한다. 이슬람의 저력은 구술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대 이후 이슬람 사회도 문자에 기초한 서구식 교육 방법을 사용하지만, 이슬람 교육은 구술적 방법을 고수한다. 무슬림들이 종교 교육에는 구술을 고수하는 것은 꾸란과 하디스가 구술로 전달하기에 적합한 운율과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털 수단의 발전으로 구술의 역할이 다시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술은 문자가 줄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에서 구술의 역할은 꾸란과 하디스 교육 그리고 설교를 보면 알 수 있다.

1. 꾸란 교육

무슬림들은 자신들을 꾸란과 하디스를 신앙과 삶의 절대적 표준으로 삼는 ‘책의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대부분 무슬림은 문자가 아니라, 구술을 통해 경전을 배우고 암송한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꾸란과 하디스가 구술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 정도의 분량인 아랍어 꾸란은 장과 절에 운율이 배어있는 산문시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아랍어를 모르는 사람도 운율에 따라 계속 반복하면 꾸란을 암송할 수 있다. 꾸란을 운율에 따라 낭

30 “일차적 구술 문화권”과 “이차적 구술 문화권”은 월터 옹의 정의에 따른 것이다. 월터 옹은 자신의 글이 없거나 글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 구술로만 의사를 소통하고 학습하는 사람들을 “일차적 구술 문화권”으로, 자신의 글을 가지고 있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구술로 학습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이차적 구술 문화권”으로 정의한다. Walter J. Ong,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13-21.

독하는 방식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하다. 흩어져 있던 꾸란의 조각들을 수집하여 편집한 사람들이 여러 낭독 방식 가운데 쿠파 출신 아심(Asim)의 낭독 방식을 표준으로 지정하여 전수했기 때문이다.³¹ 꾸란 번역본은 운율을 잃어버려 암송할 수 없다.

무슬림들은 선생이 운율에 따라 꾸란을 암송하면 그것을 듣고 따라 하면서 꾸란을 암송한다. 이렇게 하면 어린이들도 꾸란을 암기해서 암송할 수 있다. 아랍어를 아는 사람들은 꾸란을 읽을 때도 운율에 맞춰 읽는다. 선생들은 운율에 따라 꾸란을 암기시키면서 구절의 의미를 구술로 설명하고 질문과 대답을 통해 가르친 내용을 확인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무슬림들은 꾸란을 배운다. 무슬림들은 의미를 몰라도 꾸란을 낭송하지만 해도 선행으로 기록된다고 믿으며, 꾸란을 낭송하는 것을 아름답게 여긴다. 이런 구술적 방법을 통해 무슬림들의 머리와 마음에 새겨진 꾸란은 평생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 이처럼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꾸란을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무슬림들은 눈으로 읽어서가 아니라, 운율로 암송되는 것을 귀로 듣고 꾸란을 배운다. 이런 문화를 가진 무슬림들이 성경을 눈으로만 읽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들이 즐겁게 성경을 배워 머리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익숙한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필 파샬(Phil Parshall)은 데이비드 오웬(David Owen)이라는 사역자가 복음서의 내용을 꾸란의 운율과 시적인 형식과 조화시켜 아랍어로 번역했다고 알려준다.³² 그의 작업이 어떠한 반응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시도

31 Hans Küng, *Der Islam: Geschichte, Gegenwart, Zukunft*, 손성혁 역, 『한스 쿡의 이슬람: 역사, 현재, 미래』 (서울: 시와 진실, 2012), 154-155.

32 Phil Parshall, "Lessons Learned in Contextualization," J. Dudley Woodberry ed. *Muslim & Christians on the Emmaus Road* (Monrovia California: MARC, 2000), 264.

는 계속되어야 한다.

2. 하디스 교육

무슬림들에게 하디스는 꾸란만큼 중요하다. 무슬림들은 무함마드가 ‘읽히지 않는 계시’를 받아 말과 행동으로 알라의 뜻을 전해주었다고 믿기 때문에,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해둔 하디스를 삶의 모범으로 받아들인다. 하디스에는 꾸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무함마드의 말과 행동에 관한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무함마드의 전기에 나오는 내용은 주로 하디스에 근거한다.³³ 하디스에 기록되어 있는 무함마드의 언행은 이슬람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낸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무슬림들이 따라야 할 모범이므로 꾸란을 해석하고 무슬림들의 신앙과 행동을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무슬림들은 꾸란이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는 문제나 꾸란 구절이 서로 충돌할 때 하디스에서 답을 찾는다.³⁴

6개의 하디스 모음집 가운데 무슬림들이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알 부카리(al-Bukhari) 본은 분량이 방대하다. 9세기에 살았던 알 부카리는 30만 개의 전통을 모아서, 20만 개를 압송했으며 그 가운데 7,275개 만이 실제로 무함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것이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다.³⁵ 방대한 분량의 하디스를 읽는 무슬림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하디스를 연구하는 학자를 제

33 Sam Deep ed., *The prophet of Muhammad*, 장 후세인 역, 『최후의 예언자 무함마드』 (경기도 파주: 젠나무민 북스, 2015).

34 하디스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무슬림들의 신앙과 행동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Phil Parshall, *Inside in Community*, 김대옥·전병희 역, 『무슬림의 생활 지침서 하디스를 읽다』 (서울: 조이선교회, 2014)를 참조하라.

35 Phil Parshall, 앞의 책, 16-17.

외하면, 대부분은 꾸란 공부나 설교에서 전해주는 것을 듣고 하디스를 배운다. 하디스는 이런 방식으로 1,300년 동안 전승되어왔다.

꾸란처럼 운율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하디스를 구술로 전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디스는 “누가 말하기를”이라는 구문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들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어려운 교리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고 기억하기도 쉽다. 그래서 이맘들은 설교할 때 꾸란의 구절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 하디스를 인용한다. 무슬림들은 종교 선생들이 들려주는 하디스를 통해 무함마드가 어떤 말을 했으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배우고 기억하여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무함마드가 오늘날까지 전 세계 무슬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하디스 때문이다.³⁶ 하디스는 구술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보여준다.

구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알고 있는 이슬람 설교자들은 원고를 읽는 방식으로 설교하지 않는다. 설교자가 원고를 읽는 것은 설교하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설교의 권위를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설교자들은 꾸란을 암송하고 하디스 이야기로 꾸란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교한다. 예화나 PPT, 영상과 같은 자료들은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자료들은 마치 경전과 같은 권위가 있다는 인상을 주어 꾸란과 하디스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경전에서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운율을 가진 꾸란과 이야기로 구성된 하디스가 무슬림들을 동일한 이야기를 소유한 하나의 공동체(umma)로 묶고 그들의 사고와 삶을 지배한다.

키르기스 민족이 이슬람을 수용하는데 이슬람의 구술적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슬람이 중앙아시아

36 Phil Parshall, 앞의 책, 17.

에 전해지기 수백 년 전 이들을 찾아와 복음을 전했던 네스토리안 교회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외국 종교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소멸해 버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시나 이야기 같은 전통적 구술적 방법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³⁷ 그런데 소련이 해체된 후 이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구술적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눈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귀로 들은 것을 자양분으로 삼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키르기스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도록 하려면 구술적 방법을 찾아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려면 “이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이들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정서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로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관찰하고 연구한 자료가 필요하다.³⁸

IV. 마나스 서사시의 특징과 키르기스 이슬람

키르기스인들이 이슬람을 수용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아흐멜 예세비(Ahmet Yesevi, 1093-1167)이다. 1093년 카자흐스탄 사이람(Sayram)에서 태어나 사마르칸트와 부하라에서 수피 멜라메티-칼렌데리(Melameti-Kalenderi) 종파에서 수학한 예세비는 음운과 음률을 가진 시나 노래를 사용해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에게 이슬람을 전파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구술에 기초한 신화적 종교를 가지고 있던 키르기스인들이 이슬람을 수용하는 데 중

37 중앙아시아 네스토리안 교회 선교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최하영, 『실크로드를 따라 유목민에게 나타난 천년의 교회 역사: 중앙아시아 네스토리안 교회 중심』(경기도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7)을 참조하라.

38 김예녹, “최근 위구르 상황과 이슬람선교의 관계: 상황화를 위한 문화적 주제에 관한 연구,”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 12 no. 2 (2119), 44, 55.

요한 역할을 했다.³⁹ 키르기스스탄에는 19세기 말에 형성되어 소련의 박해에서도 살아남은 라치(Lachi) 분파를 비롯한 두 개의 예세비 분파가 존재하고 있다.⁴⁰

구술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교회가 뿌리 내리게 하려면 이들의 정체성 형성의 근간에 놓여있는 설화, 음악과 노래와 같은 것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⁴¹ 키르기스인들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국가와 민족과 종교적 정체성이 흘러나오는 마나스 서사시가 바로 그것이다. 키르기스의 상징인 전설적 영웅 마나스(Manas) 이야기를 담은 이 서사시는 민족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 마나스 서사시는 201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1. 마나스 서사시의 특징

마나스 서사시가 키르기스의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을 공감하게 하고 하나로 묶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키르기스인들에게 맞는 구술 방법을 찾으려면, 먼저 이 서사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나스 서사시는 키르기스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적들로부터 해방하고 보호한 마나스의 영웅적 행동을 묘사하는 이야기이다. 마나스 낭송자들은 수 세기에 걸쳐 예술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마나스를 정교한 형태로 다듬어 현재의 형태로 발전시켰다. 마나스는 9-12세기 사이에 구성되어 도제

39 Ahmet Yasar Ocak, *Türk Sufiğine bakışlar* (İstanbul: İletişim Yayınları), 2004.

40 강봉구, “마나스의 후에?: 키르기스 민족정체성 형성의 특징,” 『러시아연구』 vol. 19 no. 1 (2009), 23.

41 Alex G. Smith, “Communication and Continuity Through Oral Transmission,” 26.

방식으로 구술로 전승되어 오다가 1856년 채록되기 시작하여 1885년 온전한 기록 본을 가지게 되었다. 이 서사시는 65개 이상의 판본이 있으며 가장 긴 것은 5백만 행에 달한다. 이 판본들 가운데 오로즈바코프(S. Orozbavov)가 채록한 판본이 가장 인정받고 있다. 마나스에 여러 판본이 있는 것은 낭송자들이 기억에 담아 구술로 전승해 왔기 때문이다.

마나스는 수 세기에 걸쳐 도제로 구전되었다. 마나스 음유 시인들이 방대한 분량의 서사시를 암기해 암송할 수 있고, 키르기스인은 누구나 마나스의 줄거리를 알고 중요한 시행을 암송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마나스가 탄탄한 네러티브(narrative)와 정교한 문학 장치 그리고 독특한 운율과 창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나스에는 죽은 사람을 추도하는 민속 문학 장르인 코속(Koshok), 탄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정적인 노래 장르인 아르만(Arman), 교훈적인 서사시 장르인 사나트(Sanat), 유언 문학 장르인 나시아트(Nasiyat) 같은 키르기스의 다양한 민속 문학 장르가 융합되어 녹아있다.⁴² 이 서사시는 이러한 민속 문학 장르를 사용하여 마나스가 흠어진 키르기스 부족을 결집하여 적들을 물리치고 국가를 건설하고 죽는 영웅적인 이야기를 탄탄하게 전개해나간다. 이 이야기에서 구술 문화의 특유한 기억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하는 것은, 기억의 대상으로 잊기 어려운 영웅이 등장하기 때문이다.⁴³

마나스가 키르기스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또 다른 요소는 서사시를 구술하는 낭송자들의 탁월한 기법이다. 마나스 낭송자들(Manaschi)은 악기 반주 없이 오페라의 레치타티보(Recitativo) 창

42 S. Orozbakov, 『마나스』, 450.

43 Walter J. Ong,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116-117.

법과 유사한 독특한 창법으로 일정한 운율에 따라 마나스를 낭송한다.⁴⁴ 마나스 낭송자들은 낭송을 시작할 때나 새로운 에피소드가 시작될 때 전개될 에피소드와 등장할 인물들을 마치 그림을 보여 주듯이 독백체로 생생하게 재구성하여 설명한다. 이때 낭송자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리듬, 어조, 몸동작, 표정 등을 사용하여 이야기의 전개 상황을 설명하고 장면을 변환시킨다. 이러한 기법은 청중이 등장인물과 호흡하도록 하고 거대한 에피소드의 흐름을 파악하게 하여 이야기에 빠져들도록 한다.⁴⁵

2. 마나스와 키르기스 이슬람

키르기스인은 구 소련 통치기 동안 이슬람의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못했지만, 무슬림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 그것은 마나스 서사시가 키르기스인을 무슬림이라고 반복해서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마나스에는 이슬람 교리와 의무에 관한 가르침이 없다. 마나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하늘, 불, 태양, 물과 산의 정령들을 섬기고 조상의 영혼을 기리는 희생 제의를 드린다. 그런데도 마나스 서사시에는 키르기스인들을 무슬림이라 부르고 ‘알라’ ‘사탄’ ‘진’ ‘마자르’ ‘아즈라엘’ 같은 이슬람 용어들과 이슬람 방식의 의례들이 등장한다. 이런 이유로 키르기스인은 자신은 마나스의 후예이며 무슬림이라고 생각한다.

마나스는 키르기스인들의 이슬람 해석과 실천에 지대한 영향

44 마나스 서사시의 내용과 특징에 관해 자세히 알려면, 마나스 신화 전문가인 S. M. Musaev가 쓴 해설을 보기 바란다. 그 내용은 S. Orozbekov, *Epos Kyrghyzskogo Naroda: Manas*, 양민중 역, 『마나스』 (서울: 한국문화사, 2017), 449-497에 수록되어 있다.

45 마나스치가 마나스를 낭송하는 기법과 형태는 <https://aigine.kg/?p=13711&lang=en>을 보라.

을 발휘한다. 키르기스 무슬림들은 하나피 파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이웃한 다른 튀르크계 민족들처럼 샤머니즘과 혼합된 이슬람을 신봉하는 민속 무슬림들이다.⁴⁶ 키르기스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슬람을 믿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마나스가 키르기스인의 신념과 세계관과 종교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사실 키르기스 무슬림들에게는 꾸란보다 마나스가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이 독립한 이후 여러 이슬람 단체들이 키르기스스탄에 정통 이슬람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우즈베크인들의 구성 비율이 높아 전통적으로 정통 이슬람의 영향력이 강한 남부 오쉬(Osh)와 잘랄아바드(Jalal-Abad)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키르기스 지식인 중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근본주의 이슬람이 민족정체성을 위협하고 국민을 분열시키지 않을까 염려하는 자들이 많다. 이들 가운데는 키르기스의 전통 종교인 텡이르칠릭(Tengirchilik)⁴⁷을 다시 일으켜 키르기스의 정체성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영향력으로 키르기스스탄 헌법은 어떠한 종교의 영향력도 배제하는 세속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슬람이 키르기스스탄의 민족과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구심점과

46 남성택의 논문은 중앙아시아 튀르크계 민족들의 민속 이슬람의 관행을 관찰하여 설명하고 있다. 남성택, “전통적인 카자흐민족의 죽음이해에 대한 선교적 접근: 장례문화와 그 관습들을 중심으로,”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 13 no. 1 (2020), 87-122.

47 텡이르칠릭(Tengirchilik)은 ‘하느님’을 의미하는 튀르크어 텡그리(Tangri)의 키르기스 음역인 텡이르(Tengir)에서 나온 용어이다. 텡그리즘(Tangrism)으로 번역되는 이 종교 사상은 천신 텡이르(Tengir)가 세상을 창조했고 보호한다고 믿는다. 텡이르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자신들은 무슬림이기 이전에 키르기스인이며 텡이르칠릭(Tengirchilik)이 이슬람보다 더 정교한 종교이자 세계관이라고 주장한다. 텡이르칠릭(Tengirchilik)과 이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민경, “이슬람인가? ‘텡이르칠릭’인가?,” 국제다문화포럼 제4차 소피아 국제다문화 포럼 자료집 (2017), 269-303을 보라.

접착제의 역할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추측된다.⁴⁸ 마나스 서사시가 키르기스인들에게 끼치고 있는 이러한 영향력은 구술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준다.

V. 북의 근원교회 사례와 성경 낭송에 대한 평가와 제안

중앙아시아에서 무슬림 선교에 스토리텔링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은 여럿 있다. 키르기스스탄에도 성경을 스토리텔링으로 가르치는 C2C(창조에서 그리스도까지)가 번역되어있다. 하지만 C2C를 사용하는 선교사와 교회를 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수도 비슈켈(Bishkek)에 있는 북의 근원교회는 특이하게도 마나스 구술법을 전도와 양육에 사용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독특한 사례는 키르기스에 적합한 구술적 방법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북의 근원교회 사례를 살펴보고 보완하거나 발전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려고 한다.⁴⁹

1. 마나스 낭송법을 사용하게 된 이유

북의 근원교회는 현지 여성 사역자 굴림(Gulim)이 주도한 팀에 의해 2008년 개척되었다. 굴림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마나스

48 강봉구, “마나스의 후예?: 키르기스 민족정체성 형성의 특징,” 23.

49 필자는 2019년 7월 신학교 강의차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했을 때 마나스 낭송에 사용되는 창법을 응용하여 전도와 제자 양육을 하는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선교사의 도움으로 허락을 받아 북의 근원교회를 방문하여 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하여 성경을 낭송하는 것을 살펴보고 인터뷰하였다. 이 논문의 내용은 그때 관찰하고 기록해둔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낭송법을 사용한 것은, 이 방법이 키르기스 문화에 적합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굴림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 책을 읽는 것보다 듣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어디서 읽었다고 하지 않고 항상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누구에게 들었다”라고 말하는 키르기스인들은 구술로 성경을 배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3년 한 한국인이 큰 소리로 오랫동안 성경을 암송하는 모습을 보는 동안 마나스 낭송이 떠올랐고, 키르기스인은 마나스처럼 성경을 낭송하여 배울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굴림은 자신이 먼저 마나스 낭송법으로 성경을 암송해 보았다. 처음에는 성경 구절이 잘 이해되지 않아 암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낭송을 반복하면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기도도 배우게 되었다. 굴림은 성경 낭송을 반복하면서 말씀이 자기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했다. 굴림은 신학을 공부하고 난 후, 낭송이 키르기스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전도와 훈련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이 방법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신자들을 양육하고 있다.

2. 성경 낭송 방법과 결과

필자가 참석한 집회에서는 아임(Ayim)이라는 분이 앞에 나와서 낭송할 주제를 알리고 설명한 후, 성도들이 함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주제와 관련된 많은 구절을 레치타티브로 창법으로 낭송하였다. 이날 낭송한 주제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창법으로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필자에게는 아주 생소했지만, 낭송하는 성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

는 것처럼 보였다. 굴림은 복의 근원교회 성도들이 성경의 중요 주제와 관련된 350절을 암기하고 있으며 집회 때마다 주제를 바꾸어 가면서 낭송한다고 알려 주었다.

굴림은 마나스 낭송자들처럼 도제 방식으로 성경 낭송을 가르친다. 그녀는 제자를 택하여 기록된 자료나 녹음 없이 자신을 따라 반복해서 낭송하면서 성경 350구절을 암송하도록 한다. 혼자 기도할 때 성경을 낭송하게 하고 집회 시간에도 리더를 따라 함께 낭송을 반복시킨다. 이런 반복 과정을 통해 성경을 능숙하게 낭송하게 되면 그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도제로 훈련하도록 한다. 복의 근원교회 성도들은 많은 분량의 성경을 암기하여 낭송하는 것을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키르기스인이 학습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며, 그들의 문화 속에는 구술이라는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도제로 마나스 낭송법을 전승받은 마나스치들은 수천 개의 마나스 시행을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낭송한다.

복의 근원교회는 성경 낭송으로 전도와 제자 훈련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 필자가 인터뷰한 성도들은, 성경을 낭송하고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말씀을 적용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성경 말씀으로 대답해 줄 수 있고, 복음에 적대적인 사람이나 어려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올라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굴림은 그 이유가 구약과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키르기스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설명하는 것보다 성경의 인물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복

음을 전하거나 질문에 답할 때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보다 성경 구절을 들려주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었다.

성도들은 또한 성경 낭송이 삶을 변화시킨다고 간증했다. 이들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이겨낼 수 있었으며 이런 일이 반복되어 삶이 변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분은 파경 직전에 있었던 부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어떤 분은 반복해서 저지르던 죄에서 벗어났으며, 어떤 분은 자신의 성품이 달라졌다고 간증했다. 굴림은 성경 낭송이 삶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낭송은 어떤 상황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성경 구절들이 떠오르게 하고 그 말씀들을 종합하게 하여 삶에 빠르게 적용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나스를 듣고 낭송하며 자라난 굴림은 구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잘 알고 있었다.

3. 평가와 제안

구술 문화에 적합한 무슬림 선교 방법을 찾는 선교사들에게 복의 근원교회는 고무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 교회 성도들이 맺고 있는 열매와 경험은 마나스 낭송법이 키르기스인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아시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독특한 사례는 키르기스에 상황화에 맞는 구술적 전도, 제자 훈련 방법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나스 낭송법을 전도와 제자 훈련에 적용한 것은 키르기스 문화에 맞는 좋은 방법이지만,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어 보인다. 첫째는 낭송에 사용하는 창법에 관한 것이다. 복의 근원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레치타티보 창법은 마나스 낭송에서만 사용된다. 이 창법은 1,000년을 이어온 키르기스 고유의 창법이지만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따라 하기는 쉽지 않다. 마치 한국의 판소리와 서양의 오페라처럼,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은 많지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키르기스에는 마나스 외에도 키르기스인들이 사랑하고 쉽게 부를 수 있는 전통적인 가락과 운율을 가진 노래와 시들이 많이 있다. 마나스보다 쉬운 이런 리듬과 운율을 사용한다면 더 쉽게 성경을 암송하고 음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보다 더 보완되고 개선해야 할 것은, 복의 근원교회가 사용하는 낭송의 내용이다. 성경을 낭송할 때, 마나스 낭송가들이 사용하는 설명-낭송-설명 기법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그대로 낭송한다. 성경 구절을 낭송해서는 구술의 장점과 이야기가 품고 있는 힘을 사용하지 못한다. 마나스 서사시가 키르기스인들의 마음과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레치타티보 창법이 아니라, 낭송으로 전달되는 극적이고 웅장한 이야기이다. 창법은 그 이야기를 극대화하여 전달하는 장치이다. 이야기가 없으면 장치도 효과를 낼 수 없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구술이 아니라 문어적 특징을 갖는다.⁵⁰ 성경은 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어에 운율을 붙이고 형식을 가미하여 낭송한다고 해서 구어적 특징을 갖는 것은 아니다.

낭송이 문자적 전달 방법보다 확실히 좋은 방법이지만, 문어로 된 성경을 낭송해서 구술 문화권 사람들이 들은 내용을 기억하고 종합하여 삶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복의 근원교회 성도들의 간증처럼, 성경 낭송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만,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50 Daivid Clayton, 「구술 문화권 사람들 제자화하기」, 18.

데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만큼 강력하지 않다. 그러므로 성경 구절을 그대로 낭송하는 것보다 성경을 연대기적 이야기로 구성하여 낭송하는 것이 키르기스 문화에 훨씬 적합하다.

성경은 삼위 하나님의 창조-타락-구속-회복이라는 거대한 연대기적 이야기(meta-narrative)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는 각각의 교훈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전체의 이야기에 수렴된다. 중앙아시아에서 연대기적이나 주제별로 구성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어 열매를 얻고 있는 것은, 이 방법이 성경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해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며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⁵¹ 앞에서 언급했듯이, 삼위 하나님의 창조-타락-구속-회복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와 충돌하면서 그것을 수정하고 세계관을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함으로 개인과 사회를 회복하고 고쳐나가도록 해준다. 마나스 낭송법으로 성경 구절을 낭송하는 것보다 이야기로 구성하여 낭송하는 것이 키르기스 문화에 더 적합할 뿐 아니라, 키르기스인들의 내면에 있는 이슬람의 이야기를 수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도록 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낭송을 이야기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 작업은 LCWE(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 위원회)가 개발한 자료들과 데이비드 클레이돈이 소개하는 단체들이 개발한 책과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해 할 수 있을 것이다.⁵² 성경을 이야기로 전달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듣는 사람들이 텍스트를 소홀히 여기도록 해

51 Jack Colgate, "Bible Storying and Oral Use of The Scriptures," J. Dudley Woodberry ed, *from Seed to Fruit: Global Trends, fruitful Practices, and Emerging Issues among Muslims*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2008), 219-231.

52 Daivid Claydon, 「구술 문화권 사람들 제자화하기」, 113-135.

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경은 진리를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다. 성경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 다른 이야기들이 혼합되어 진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 주며, 이야기의 어떤 부분을 잊어버렸을 때 회복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구술적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전하는 진리를 알게 되면, 성경을 읽지 않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고,⁵³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더 정확하고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준다.⁵⁴

VI. 나가는 글

무슬림들은 능숙한 구술 학습자이자 구술 전달자이다. 무슬림들은 꾸란과 하디스를 구술로 가르치고 배운다. 무슬림들이 현대에도 꾸란과 하디스를 구술로 가르치는 것은 오랜 경험을 통해 구술이 사람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키르기스 무슬림들에게 구술이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특별하다. 키르기스의 민족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이 구술로 표현되고 전승되는 마나스 서사시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키르기스스탄 북의 근원교회는 마나스 창법으로 성경을 낭송하여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이 독특한 사례는 키르기스에 적합한 구술적 방법 개발에 대한

53 Avery T. Willis Jr and Mark Snowden, 『성경 스토리텔링』, 149.

54 James Collins and Richard K. Blot의 연구는 orality와 literacy가 반대되거나 동등하지 않고 상호보완적임을 알려준다. James Collins and Richard K. Blot, *Literacy and Literacies: Texts, Power, and Identit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30.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방법이 키르기스인들에게 더 적절한 방법으로 발전하려면, 성경 구절을 낭송하기보다 성경을 이야기로 구성해서 낭송해야 할 것이다. 성경에 운율을 붙여 낭송하는 것은 구술보다 문어적 특징을 가지므로 구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기 때문이다. 키르기스인들이 마나스에 몰입하는 것은 낭송 때문이 아니라, 낭송으로 전달되는 웅장한 이야기 때문이다. 성경은 삼위 하나님의 창조-타락-구속-회복이라는 거대한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대기적 또는 주제를 담은 이야기로 구성하여 낭송하는 것이 키르기스 무슬림들을 전도하고 제자로 훈련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복의 근원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낭송법을 키르기스의 운율과 전통에 맞는 이야기로 발전시키는 작업은 현지 성도들과 선교사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 강봉구. “마나스의 후예?: 키르기스 민족정체성 형성의 특징.” 「러시아 연구」 vol. 19 no.1 (2009): 1-30.
- 김규보. “시물라르크 세대와 “들음” 회복으로서의 종교개혁: 기독교 교육과 상담의 통합접근.” 「성경과 신학」 vol. 85 (2018): 101-134.
- 김에녹. “최근 위구르 상황과 이슬람선교의 관계: 상황화를 위한 문화적 주제에 관한 연구.”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 12 no. 2 (2019), 41-94.
- 김연수. “전통개혁선교를 위한 구술문화권 이해와 사역.” KWMA 2018 세계선교대회 & 7차 세계선교전략회의 자료집 (2018): 100-109.
- 남성택. “전통적인 카자흐민족의 죽음이해에 대한 선교적 접근: 장례문화와 그 관습들을 중심으로.” *Muslim-Christian Encounter*, vol. 13 no. 1 (2020): 87-122
- 최민경. “이슬람인가? ‘땡이르치릭’인가?.” 국제다문화포럼 제4차 소피아 국제다문화포럼 자료집 (2017): 269-303.
- 최하영. 『실크로드를 따라 유목민에게 나타난 천년의 교회 역사: 중앙아시아 네스토리안 교회 중심』. 경기도 파주: 한국 학술정보, 2007.
- Avery T. Willis Jr and Snowden, Mark. *Truth and Sticks*. 김연수 · 김택주 공역. 『성경 스토리텔링』. 서울: 아가페북스, 2015.
- Carlton, R Bruce. *Acts 29: Practical Training in Facilitating Church-Planting Movements Among the Neglected Harvest Fields*. 채천석 역. 『Acts 29』. 서울: 한국 강해설

- 교학교 출판부, 2007.
- Claydon, Daivid. *Making Disciples of Oral Learners*. 채천석 역. 『구술 문화권 사람들 제자화하기』.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2007.
- Colgate, Jack. “Bible Storying and Oral Use of The Scriptures.” J. Dudley Woodberryed. *from Seed to Fruit: Global Trends, fruitful Practices, and Emerging Issues among Muslims*.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2008: 219-231.
- Collins, James and Blot, Richard K. *Literacy and literacies: Texts, Power, and Identit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Deep, Sam ed. *The prophet of Muhammad*. 장 후세인 역. 『최후의 예언자 무함마드』. 경기도 파주: 젠나무민 북스, 2015.
- Grenz, Stanley J. and Olson, Roger E. *20th-Century Theology*. 신재구 역. 『20세기 신학』. 서울: IVP, 1997.
- Hiebert, Paul G. & Hiebert, Eloise Meneses. *Incarnational Ministry: Planting Churches in Band, Tribal, Peasant, and Urban Societies*. 안영권 · 이대현 공역. 『성육신적 선교사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 Kim, Yoon-Soo. “Mission for People in Oral Culture.” 「한국선교 KMQ」 2016 English Edition: 78-87.
- Kraft, Charles H. *Communication Theory for Christian Witness*. 박영호 역. 『기독교 커뮤니케이션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 _____. “상황화와 시간: 세대적인 타당성.” Charles H. Kraft ed.

- Appropriate Christianity*. 김요한 · 백신중 · Peter Kang · Christina Kang 공역. 『말씀과 문화에 적합한 기독교』.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403-434.
- Küng, Hans. *Der Islam: Geschichte, Gegenwart, Zukunft*. 손성혁 역. 『한스 쿡의 이슬람: 역사, 현재, 미래』. 서울: 시와진실, 2012.
- Lausanne Movement. *The Cape Town Commitment: Study Edition*. 최형근 역. 『케이프타운 서약』 서울: IVP, 2014.
- Lovejoy, Grant. ed. *Making Disciples of Oral Learners, Lausanne Occasion Paper, No. 54*. Lausanne Committee for World Evangelization, 2005.
- Moon, W. Jay. “I Love to Learn but I Don't Like to Read: The Rise of Secondary Oral Learning.” *Orality Journal* vol. 2, no 2 (2013): 55-65.
- Ocak, Ahmet Yasar. *Türk Sufiğine bakışlar*. İstanbul: İletisim Yayınları, 2004.
- Ong, Walter J.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이기우 · 임명진 공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2009.
- Orozbekov, S. *Epos Kyrgyzskogo Naroda: Manas*. 양민중 역. 『마나스』. 서울: 한국문화사, 2017.
- Parshall, Phil. “Lessons Learned in Contextualization.” J. Dudley Woodberry ed. *Muslim&Christians on the Emmaus Road*. Monrovia California: MARC, 2000: 251-265.
- _____. *Inside the Community*. 김대옥 · 전병희 공역. 『무슬림의

- 생활 지침서 하디스를 읽다』. 서울: 조이선교회, 2014.
- Redford, Shawn B. “적합한 해석학.” Charles H. Kraft ed. *Appropriate Christianity*. 김요한 · 백신종 · Peter Kang · Christina Kang 공역. 『말씀과 문화에 적합한 기독교』.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360-402.
- Smith, Alex G. “Communication and Continuity Through Oral Transmission.” Paul H. De Neui ed. *Communicating Christ Through Story and Song*(SEANET 5).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2018: 2-26.
- Stroup, George W. *The Promise of Narrative Theology*. Atlanta: Jhon Knox, 1981.
- Whiteman, L. Darrel. “신교에 있어서 적합한상황화의기능.” Charles H. Kraft ed. *Appropriate Christianity*. 김요한 · 백신종 · Peter Kang · Christina Kang 공역. 『말씀과 문화에 적합한 기독교』.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94-140.
- Wright, N. Tom. *The New Testament and the People of Go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 <https://aigine.kg/?p=13711&lang=en> (2021년 8월 1일 검색).

■ ABSTRACT

Muslim Evangelism and Disciple Training Through Oral Transmission : Based on a Case Study in Fount of All Blessing Church in Kyrgyzstan

Sung Woon Ki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uggest directions for oral transmission techniques that are localized to Kyrgyz culture. Most Muslims are adept in learning and communicating through oral transmission. In the present day,

Muslims teach the Qur'an and Hadith through oral transmission because of its effectiveness. Oral transmission is particularly meaningful to Kyrgyz Muslims, since their religious and nationalistic identity stems from their uniquely intoned recitation of the Epic of Manas. One church in Kyrgyzstan utilizes oral transmission derived from the recitation of the Epic of Manas as a tool for evangelism and discipleship. This church shows the potential of developing oral transmission techniques appropriate for the Kyrgyz people. However, reciting verses verbatim does not fully employ the forte of oral narratives. As such, this study proposes that arranging the recitations according to the Bible's meta-nar-

rative of creation–corruption–redemption–restoration can help to rectify the Islamic narrative innate in the Kyrgyz people and transform their lives by accepting Jesus Christ.

Keywords: Oral Transmission, Contextualization, Muslim Evangelism, Islam, Kyrgyz Folk Islam